

전민규, Ph.D. 3276-6229  
min.jun@truefrien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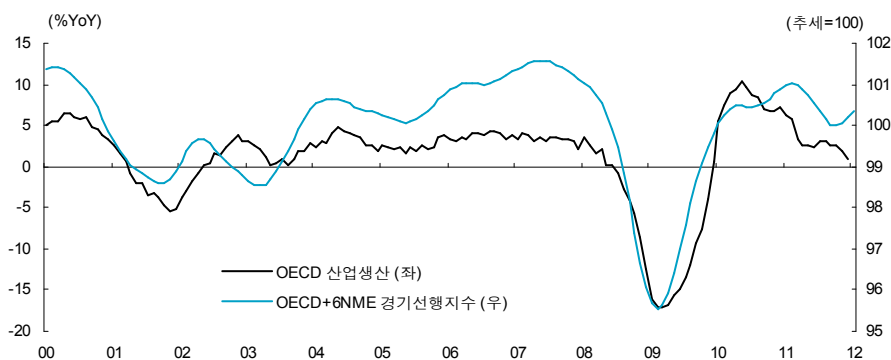
## OECD 선행지수, 미국과 중국 경기 호조 예고

- OECD 경기선행지수 4개월 연속 상승, 글로벌 경기 회복 가능성 높아져
- 미국과 아시아 경기 호조 반면 유럽 경기는 정체되는 등 지역별 경기 차이
- 중국 경기선행지수가 4개월째 상승한 것으로 발표됨에 따라 국내 수출에 긍정적

### OECD 경기선행지수 4개월 연속 상승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경기선행지수는 2월 지표에서도 전월 대비 상승함으로써, 연속 상승 기간이 4개월로 늘어났다. 이는 유럽 재정 위기와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등 세계 경제에 악재가 많은 가운데서도 경기 회복 시점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2000년 이후로는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 반등 시점 간의 시차가 없어 선행지수 반등이 사실상 경기 반등을 의미한다. 참고로 OECD는 산업생산지수를 경기동행지수로 사용하고 있다.

[그림1] OECD 경기선행지수 추이



자료: OECD

<표 1> OECD 경기선행지수 반등과 산업생산지수 저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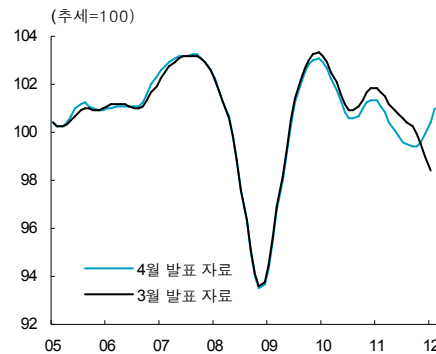
OECD 경기선행지수	세계 산업생산지수	시차
1991 년 1 월	1991 년 6 월	5 개월 선행
1992 년 11 월	1993 년 5 월	6 개월 선행
1995 년 6 월	1996 년 4 월	10 개월 선행
1998 년 10 월	1998 년 12 월	2 개월 선행
2001 년 9 월	2001 년 11 월	2 개월 선행
2003 년 3 월	2003 년 8 월	동행
2005 년 5 월	2005 년 5 월	동행
2009 년 2 월	2009 년 2 월	동행
2011 년 10 월	-	-
평균		3 개월 선행

### 중국 개선, 유럽 부진 등 지역별 경기 동향은 전월 발표와 크게 달라져

전월에 발표됐던 OECD 경기선행지수는 미국 경기 회복 시작, 유럽 경기 회복 임박, 중국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지역별 경기 회복 순서가 미국, 유럽, 중국이 될 것임을 시사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수치에서는 중국과 유럽 선행지수가 크게 수정됨으로써 기존 경기 흐름에 대한 판단도 달라지게 됐다. 미국 경기의 회복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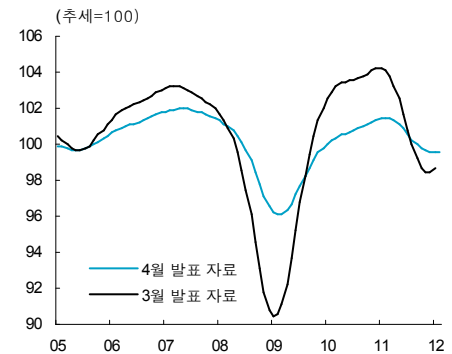
반면 중국 경기선행지수는 전월까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었으나, 이번 발표에서 이미 4개월째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수정됐다. 전월에는 유로존 경기선행지수가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발표됐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상승도 하락도 하지 않는 상태가 2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번에 발표된 수치가 좀 더 정확한 것이라면 중국 경기는 반등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이 달라져야 한다. 반면 유로존 경기는 여전히 불투명하며 글로벌 경기 회복에 중요한 열쇠임을 보여줬다.

[그림2] 중국 경기선행지수



자료: OECD

[그림3] 유로존 경기선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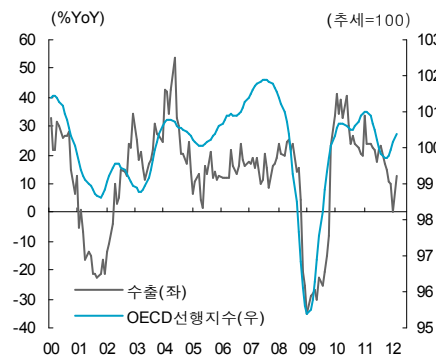


자료: OECD

### 국내 경기에도 긍정적 영향 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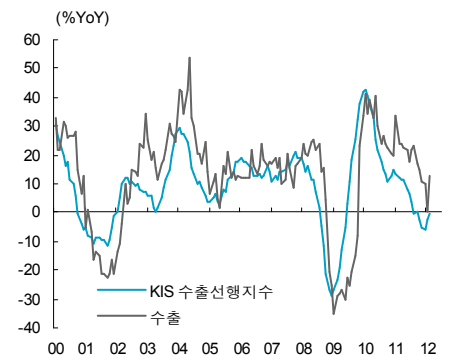
OECD 경기선행지수는 한국의 수출 경기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감안할 때 수출 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국 경기선행지수가 이미 반등한 것으로 수정된 것은 중국 경기 회복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중국 경기와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석유화학, 철강 등의 산업이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임을 의미한다. 수출 개선 가능성은 당사의 KIS 수출선행지수에서도 확인된다. KIS 수출선행지수는 1월과 2월에 빠르게 반등하면서 수출 증가세가 회복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그림4] OECD 경기선행지수와 수출



자료: OECD, 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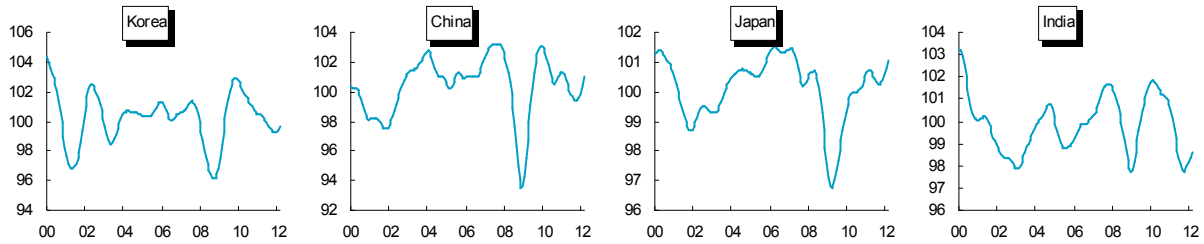
[그림5] KIS 경기선행지수와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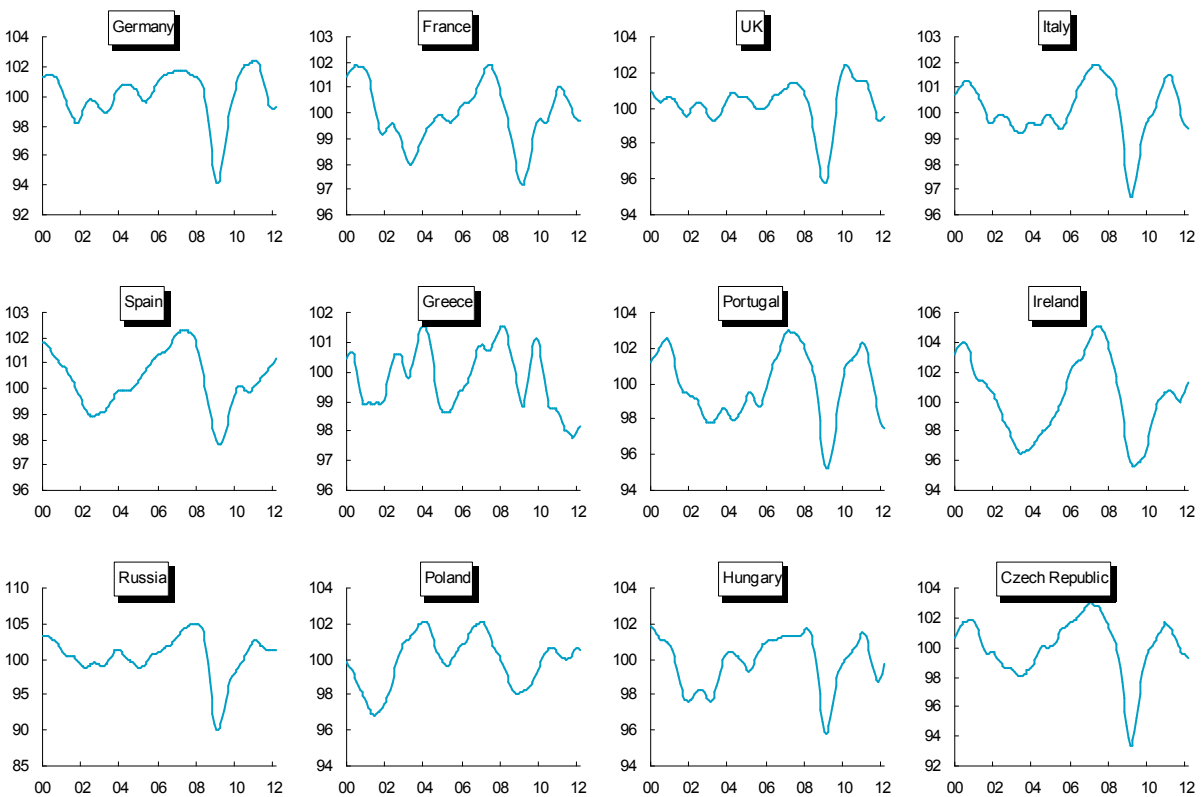
자료: 한국투자증권, 무역협회

<부록1> 지역별 경기선행지수

1. 아시아



2. 유럽



3. 미주

